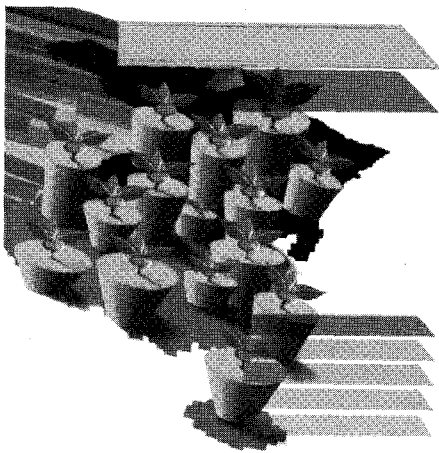


편집위원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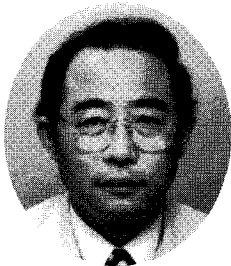
꾸지람 보도의 참뜻을 알자



관심있게 하기위한
표현일 수 있어
문제해소와 대책 마련
촉구하는 채찍일 뿐

미국소비자연맹(CU)은 최근 2만7천개의 과일과 채소 샘플을 대상으로 농약의 잔류농도를 측정한 결과 사과, 포도, 강낭콩, 복숭아, 시금치 등이 고농도의 잔류농약을 함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미국산 농산물이 수입농산물보다 더 독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워싱턴발 AFP통신이 지난 2월 18일 전했다.

또 최근 일본 아사히 TV는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市에서 생산된 농작물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그 여파로 겁먹은 소비자들이 다음날부터 시금치를 사먹지 않게되자 생산농가들은 방송국 측에 문제의 농작물을 공개할 것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사이타마현 농협은 이 농작물이 엽차였음을 밝혔고 방송국측도 전국 시청자에게 사과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는 잔류농약으로 인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으며 우



이 보 길
KBS 예심위원

리나라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 채소류서 농약과다 검출(경향신문)
- 상추, 시금치에 과다농약(세계일보)
- 농협채소서 농약검출(조선일보)
- 상추쌈이 「농약쌈」(중앙일보) ………

이 기사들은 모두 98년에 잔류농약 검출사실을 보도한 신문기사의 제목들인데 이걸보면 당장 이런 채소를 먹는다면 농약피해를 당해 무슨 변이 일어나지 않을까 실제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

최근 매스컴들은 90년대초 라면의 우지파동 이후 불량식품은 물론 농약콩나물 등 각종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비된후 불합격 판정은 의미 없어

신문·방송들이 이렇게 맹렬하게 보도를 하고 당국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류농약 문제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 물론 국민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잔류농약이 나온 농산물실태를 보면 가락도매시장의 경우 97년에 90품목, 검사건수가 1천5백30건이었으나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40건(2.6%)이었고 98년 11월엔 1백75품목, 검사건수 1만4천2백건이었는데 간이속성검사 부적합 의심판정이 1백91건, 정밀검사 부적합이 1백35건(0.9%)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들어 가락동농수산물센터에 들어오는 채소류 등에 대한 농약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적합한 사례가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사제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이루어지는 검사에 대해서는 신뢰



이제 일채소 전용농약 개발로 생산농민들의 걱정은 한시를 덜게 되었으나 무엇보다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채소류 등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에 오랜 시간이 걸려 소비자가 농산물을 소비한 뒤에야 「적합」 또는 「부적합」판정이 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여하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잔류농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검사제도를 도입해 98년 10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 신속검사제도는 잔류농약 시험분석 시간을 9시간 이내로 최소화해서 유해농산물 유통을 빨리 차단시키는 제도라고 밝히고 있다.

또 서울시도 잔류농약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3월부터 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농약잔류의 적합 여부를 정밀 검사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전에는 가락시장에서 간이검사 결과 의심이 가는 농산물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옮겨 정밀검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가락시장에서 직접 간이검사와



편집위원 기고

정밀 검사를 병행하게 돼 검사결과가 바로 나오게 된다]면서 기준치이상 농약성분이 검출된 농산물에 대해선 폐기처분 및 출하금지 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간신문 · TV등 언론사 입장은 농약의 과다 살포 및 출하전 사용 근절

잠시 잔류농약보도와 관련해 관계당국의 조치를 알아보았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약 잔류에 관한 불안감 해소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농약잔류문제는 한매체에서만 보도되는게 아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조·석간 10개, 경제지 4개, 통신, 3개TV와 각 라디오방송 등이 이런사실을 일제히 보도한다고 생각해 보자. 수천만의 시청자·독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때 그 파장은 대단할 것이다.

거기다가 각 신문들은 그들의 사설난과 해설난을 통해 이런 농약채소를 생산한 농민들을 처벌까지 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98년 6월 23일자 중앙일보는 「농약채소 막을길 없나」란 사설을 통해 「채소에서 검출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의 수백배에 이르고 있다니 채소를 먹는건지, 농약덩어리를 먹는건지 모르겠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농약채소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신문은 덧붙여 「검사체계를 강화하고 잔류농약이 검출된 생산농민은 벌금과 체형이 가능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 같은 날짜의 경향신문도 「농약채소 식탁에 안오르게」란 사설을 싣고 있다. 역시 기본 논조는 중앙일보와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이 신문은 생산자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라고 당국을 채찍질 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대부분 언론의 시각은 농민들이 농산물재배시 농약을 과다하게 뿌리고 있으며 출하직전까지도 농약을 친다는 소문이 나있어 이런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처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민 애로사항 반영돼야 하나 안됐다고 오보 · 과장보도로 단정 할 수 없어

이런 언론들의 논리는 일단 맞는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농민들도 일전에 통조림에서 방부제인 호르마린이 검출됐다는 뉴스를 보았을 것이다. 아마 통조림업자를 욕했을 농민이 안한 사람보다 더 많을 것이다. 농민입장에서 언론을 보면 왜 농민이 이런 농약을 잎채소에 사용했고 또 이런 농약을 사용해야 하는지 원인에 대해서는 한마디 보도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농민을 몰아치느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언론의 보도가 잘못됐거나 너무 과장됐다고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탄의 대상은 농민뿐인데 과연 이들에게만 책임을 돌려야 된단 말인가? 그건 결코 그래선 안될 것이다. 농민들의 영농을 지도하고 또 애로사항을 해결해줘야 할 관계부처의 노력은 어느정도인가 하는 점이 남아있다. 그런데도 지금은 그 책임을 순전히 농민들에게만 전가시키고 있는 느낌이다.

상추나 깻잎 등 소면적재배작물에 치는 약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따라서 또 이들 작물들은 아직 농약안전사용기준이 없다는 것 그래서 잔류농약검사결과 가끔 농약검출빈도가 높이나오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 였는데 이런 근본적인 배경 설명은 언론에 해주질 않았는지 언론에선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잔류농약문제와 관련해서 농민의 고충과 당국의 대책을 추구하고 있는 신문은 「농민신문」을 비롯한 일부 전문지뿐이다. 농민신문은 지난 1월 세 차례에 걸쳐 「잔류농약검사 무엇이 문제인가」란 제목으로 심층분석 기사를 냈고 이어서 2월에는 상추와 깻잎 등 잎채소류에 대한 잔류농약 검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소면적재배작물 적용농약을 빠르면 내년부터 시판할 수 있다는 「잎채소 농약 내년부터 시판」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농민신문은 이 기사에서 「채소류 등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가 강화되고 있고 잔류허용기준을 넘을 경우 해당 농산물 출하주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되면서 많은 농가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일부품목의 경우 잔류농약허용기준 및 농약안전사용기준 자체가 설정돼 있지 않아 농가에 선 현실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라면서 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입는 잔류농약검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비교적 소상히 분석하고 있다.

전문지의 심층적 문제점 분석은 일반의 이해를 높인데 큰 도움

또 이기사에선 잔류허용기준 문제와 함께 상추와 깻잎 등 소면적재배작물에 대한 적용약제의 개발을 강력히 추구하고 있어 어느누가 보더라도 「잔류농약! 지금까지 무엇이 문제였었구나」하는

것을 즉각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잔류성을 최소화한 농약이 개발중에 있고 이 농약을 내년부터 시판한다는 기사로 마감하고 있는데 이런보도가 일찍이 일반신문과 방송에 나갔다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크게 도움이 됐을 뿐만아니라 전용약제 개발을 서둘렀을 테고 그래서 생산자가 억울하게 비난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잔류농약 보도에 관한 언론의 태도 등에 관해 설명을 했으나 잔류농약에 관한 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정부부처에서부터 농약회사, 그리고 농민에 이르기까지 한군데도 빠짐없이 배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잔류농약 문제를 심각하게 보도한 언론에 대해 비난만을 해선 안될 것이다. 언론보도의 참뜻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에 대해선 약제개발을 추구하고 농민에게는 내가족이 먹을 것이다란 생각으로 농산물을 재배해 달라는 것이다. 이제 적용약제도 개발되고 농민들이 내식구들이 먹을 채소처럼 정성들여 가꾸어 출하한다면 틀림없이 언론들은 저마다 나서서 이렇게 보도할 것이다.

신문: 「가락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산물이 최근 한건도 없어 검사용으로 들여온 최신기계가 고철덩어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TV: 「네! 이제 우리소비자들은 잔류농약 걱정 없이 깻잎 등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채소재배 농민들의 끈질긴 요구로 정부가 지금보다도 병해충에는 강하면서도 인체에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잎채소 전용농약을 개발, 보급했기 때문입니다.」 **농약정보**